

# 의식으로 풀어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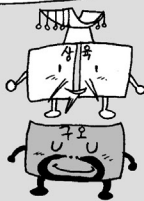
## 주역의 취(萃)괘 3-⑩

이번호는 취괘  
마지막 호인  
상육으로, 제일  
위에 위치한  
음효입니다.



상육은  
재자체이(齎咨涕洟)  
무구(無垢)니라. 상에  
이르기를 재자체이는  
미안상애(未安上也)라.

상육(上六)은 탄식하고 눈물 흘리지만  
허물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눈물을 흘린다(齎咨涕洟)는 것은  
윗자리에서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육의 효사는 높은 위치에 거하여  
편안하지 않지만 구오(九五)에 붙어 기쁨을  
취하니 허물은 없으리라는 말입니다.

취의 상육은 유약한 소인(陰)이 높은 지위에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편안하지  
않은(未安上) 것입니다. 왜 소인은 높은  
지위에서 편안하지 않을까? 소인은 늘  
자신을 위해 탐을 내고, 전체를 위한 의로움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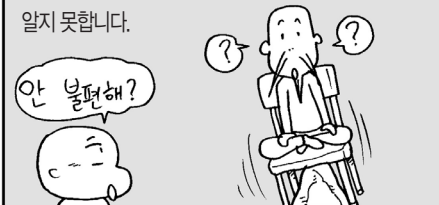




높은 자리란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과 힘든 일은 피하고 싶어하면서 높은 자리가 주는 기쁨은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지(程子)가 이르되, '소인의 처신은 늘 그 마땅함을 잃는다(小人所處 常失其宜)'라고 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분수에 맞는 편안한 곳을 선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위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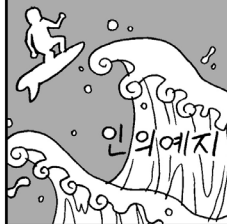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러한 무의식적 소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파도가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파도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1m 파도를 한번 타고 넘어갈 줄 알게 되면 이제부터 다가오는 비슷한 크기의 파도는 힘든 파도로 느껴지지 않고 삶의 재미로 느껴집니다.



그에게 파도타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게임이 됩니다. 그러나 파도타기는 연습하지 않고 그저 강 저편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정원만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소인의 마음입니다.



공자는 소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파도타기 연습을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네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가 억압적인 형식주의를 사회에 설치해놓았다고 비판하지만, 그 안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통찰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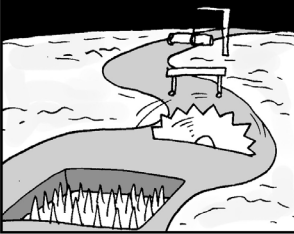


인의예지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한다(must)는 규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이기 위해(show) 취하는 걸모습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훈련법으로 공자는 그 길을 통해 삶의 통찰과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공자는 나이 40에 불혹(不惑), 50에 지천명(知天命), 60에 이순(耳順)이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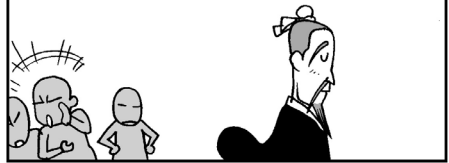
40에 그 어디에도 미혹이 없었으니(不惑) 자기의 내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天命)을 알고 행했으며,



그렇게 행하는 중에 비난과 비판이 들려와도 흔들림 없이 개의치 않았고(耳順),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천도(天道)에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혹이란 어디에도 미혹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도, 생각에도 빠지지 않고,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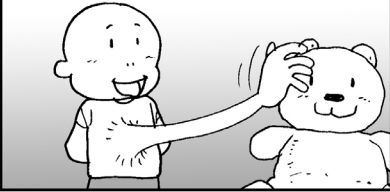
그것은 삶과 의식을 탐구하다보니 일어난 통찰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지 형식적인 예의와 형식적인 어짐을 통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빠지지 않게 되니 이제 그는 자기 내부로부터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자신을 괴롭히던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라는 내적인 감옥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희로애락애오욕을 느끼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러했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낙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비(哀而不悲)입니다. "즐거워하되 음란함에 빠지지 않고, 슬퍼하되 비통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음란함이란 즐거움의 극에 달하여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말하며, 비통함이란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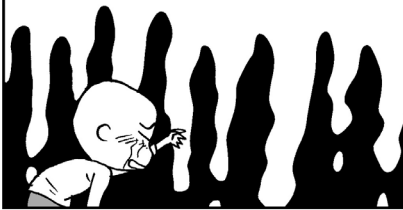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즐거움에 빠지면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합니다. 즐거웠던 과거에 매달려 다시 그것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상대적으로 심심하고 권태롭게 되지요. 그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커다란 슬픔을 마주하면 세상이 온통 슬픔으로 가득찬 듯 보입니다. 오직 슬픔만이 존재하는 듯 느껴집니다. 슬픔에 빠진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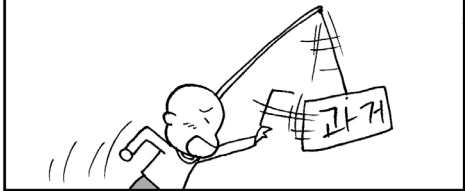
낙이불음 애이불비는 기쁨과 슬픔을, 자기 존재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멈춤(stop)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분노에 빠지지 않고 분노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가지 감정 모두에 대해 이와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요.



또 공자가 불혹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내적인 관성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항상 지나간 즐거움과 지나간 슬픔의 흔적에 매달려 사는 삶, 그것이 소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지난 즐거움을 기억하지만 그와 같은 즐거움을 계속 탐하지 않고, 지난 슬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바로 '지금여기의 삶을 사는 것이 군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소인의 삶이 과거의 회한과 미래의 공포에 좌우되는 시간속의 삶이라면, 군자는 찰나에 충실한 무시간성(無時間性)의 영원에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밖에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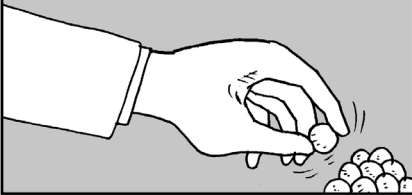
그러한 군자의 삶을 위해 공자는 인의예지라는 수련법을 제창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질어야 하고 의로우며 예를 다하고 지혜로워야 한다(mus)가 아니라, 어짐(仁)을 연습하고, 의로움, 예의, 지혜를 자신의 수준에 맞게 연습해(practice) 불혹과 지천명, 이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취 과의 상육에게 적용하면, 취이불탐(取而不貪) 즉 필요에 의해 취하되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탐욕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취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용할 데가 없으면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탐욕은 사용할 데가 있어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마음'이 관성이 되어 '탐욕이라는 습관'으로 제2의 천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는 탐욕에 '빠져'있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빠져있는지도 알지 못하지요. 군자가 취이불탐(取而不貪)이라면 소인은 탐이불식(貪而不息: 탐하여 쉬이 없다)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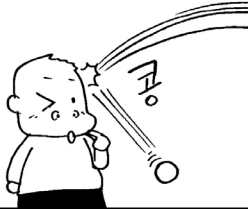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탐(貪)에 빠져있다고 말하지 습니다. 그러면 왜 소인은 탐이불식 하면서도 자신이 거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의 내면 또는 심층의식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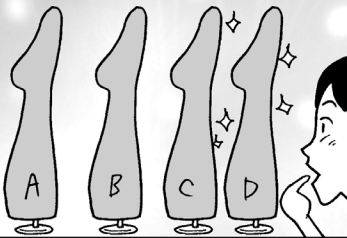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진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과 사회심리학자 티모시 윌슨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여 '보다 고차적인 인지과정에 자기반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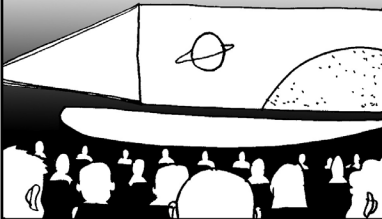
그들은 몇가지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 쇼윈도에 똑같은 질의 스타킹 네벌을 좌로부터 A, B, C, D 순으로 놓고 최고의 품질인 것을 고르라 했을 때 피험자들은 40% 이상이 제일 우측의 D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D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위치효과(position effect)에 의해 가장 우측의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치효과 때문에 자신이 D를 고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A, B 두 그룹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A그룹에게는 중간중간 시끄러운 톱질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후 설문지 작성의 결과는 A B 두 그룹 모두 영화를 재미있게 즐길 것으로 나타났지만, A그룹은 소음 때문에 영화의 즐거움이 약간 덜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심층에서는 A그룹도 실제 영화를 B그룹과 똑같이 재미있게 즐긴 것으로 나왔지만, 그들의 의식적인 대답은 '많이 즐기지 못했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의식은 그들이 즐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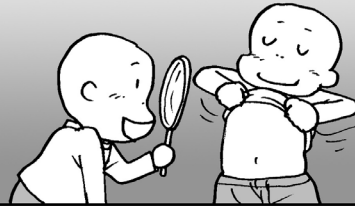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리처드와 티모시는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을 의식적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적응무의식에서는 그 모드를 알고 그에 따라 대부분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무의식이 탐이불식으로 나타내고, 군자에게 있어서는 취이불탐으로 나타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겉모습만 달리할 뿐입니다. 오직 심층을 들여다보고 실천함을 통해서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체계의 상육은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강한 구오에 붙어 허물없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심층을 탐험하여 무의식에 변화가 있기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